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훈센 총리 경제적 양여권 수여 면적 축소 검토 지시

2012년 4월 17일자 현지 신문인 Kampuchea Thmey Daily에 의하면, 훈센 총리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양여권을 취소할 것과 불법적인 벌목활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더불어 2011년 12월 30일 민법발효에 따라 민법상 장기임대차의 최장 50년 규정과 토지법상 양여권의 99년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훈센 수상의 지시가 있는 후 체결되는 양여권은 5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장기임대차와 양여권은 법적으로 다른 토지사용권 부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훈센 총리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양여권을 50년간만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 면허 발급 중지

2012년 5월 2일자 캄보디아 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에 너무 많은 이동통신업자들이 과당 경쟁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사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동통신사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 [No New Mobile Carriers, Government Announces - Cambodian Law Blog \(2012. 5. 2.\)](#)

프놈펜 공공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실사 실시

프놈펜 시청은 버스운행을 위한 공공교통망을 위한 계획을 위한 실사를 시스트라(Systra)에 의뢰하여 수행했습니다. 실사결과 프놈펜이 현재 인구 성장, 증가하는 이동성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전환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프놈펜 내 대중교통 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PPWSA sets an IPO date – The phnom penh post \(2012. 3. 1.\)](#)